

투데이 칼럼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

북한 핵개발은 3대 세습 체제의 숙원사업이다. 북한 핵개발은 1965년 구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1979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이 원자로는 1986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전력 생산 등 평화적 목적에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호적인 시각이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 직전인 198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핵무기 개발을 겨냥한 북한의 위장전술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불거진 것은 1989년경이다. 북한은 당시 100여 일간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을 교체했다.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IAEA 조사관들이 영변 원자로를 조사한 결과 이미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을 확인했다.

IAEA가 추가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NPT를 탈퇴했다. 동북아 정세는 급박한 위기 국면에 휘말렸다. 이것이 제1차 북핵 위기다. 미국에 달린던 행정부가 들어서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고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국면 전환의 기대감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사찰 방해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영변 폭격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등 위기 국면이 이어졌다.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특사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0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을 체결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하여 대북 경수로 제공 및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을 약속했다.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996년 IAEA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7년 2월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하고, 유엔 연례핵군축 회의에도 불참했다.

결국 제네바 합의로 봉합됐던 북핵 문제는 2002년 10월 다시 불거졌다. 미국 정부는 2002년 12월 기본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할 것이며, IAEA 안전 협정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제2차 북핵 위기다.

2003년 4월 중국과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가한 3자회담이 열렸고 8월에는 6자회담이 처음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2005년 9월 제4차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첫 같은조차 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되었다.

북한은 처음부터 'NPT 복귀나 IAEA 안전조치 복귀를 비롯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행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초강수가 먹혀들면서 2007년에 북미대화가 재개됐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를 담은 2·13합의가 이뤄졌다. 2008년 6월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채택됐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13년 2월 우라늄 방식의 제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1월 제4차 수소폭탄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공을 들여왔다. 잠수함 발사 장거리로켓 실험을 계속 하는 것도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차례 더 핵실험을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 다른 부서의 일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새 한전 인턴으로서 나에게 남은 시간은 2주 남짓이다.

세 달이란 짧은 시간은 인턴으로서 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짧고 아쉬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실히 노력하고, 부족함이라도 열심히 배워가며 경험을 쌓아간다면 많은 걸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은 분명하다.

이 인턴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인턴이 다시 이 자리에서 나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그 분, 그리고 체험형 인턴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인턴이라는 경험이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사회를 향해 내딛는 성공적인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고문

나의 인턴 체험기

떨리는 손으로 체험형 인턴 합격 공지를 확인하기도 벌써 2개월이 흘렀다. '첫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새로운 경험을 향한 기대감을 함께 품고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질 숙제는 바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 즉 하고 싶은 업무를 정하는 일이었다. 각 부서 선배들의 설명을 듣고 결정의 기로에 선 나는 고민 끝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략경영부를 지원하였다. 인턴 생활을 하며 많은 걸 배워가고 싶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일하던 대로 전략경영부에 배정되었고 전략경영부 인턴 신해린 이 적힌 명찰과 함께 인턴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바로 부서 각 파트의 업무 파악이었다. 전략경영

부 내에서도 다양한 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만 인턴으로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쁜 중에도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했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업무 숙지에 최선을 다했다.

인턴 기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업무를 꼽자면 '해피콜'을 이야기하고 싶다. 해피콜이란 한전과 업무를 처리했던 고객들을 상대로 친절도, 신속도, 정령도 등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전화설문이다. 처리가 완료된 업무에 대한 설문이나 보너스, 응답 자체를 귀찮아하는 고객들도 있었고 큰 소리로 불만사항을 얘기하시는 고객도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해피콜을 진행하는 초반에는 후시 실수하지 않을지, 거친 말투에 상처받지는 않을



신해린

인턴 전략경영부 전략경영부 청년인턴

지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해피콜을 거듭 진행하면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오히려 고객들이 어떤 개선사항을 느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는지 솔직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한전의 업무 처리 방식과 개선점을 생생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친절함, 태도를 잃지 않고 몇 백통의 전화를 반복해 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

사설

대북 진단과 남북관계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진단 살포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심각한 도발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대북 진단 50만 장을 보냈다.

이들은 비무장 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진단을 살포했다. 지난 4월 25일과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 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그리고 1달터 지폐 5천 장을 날려 보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 정부 책임까지 돌리며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냈다.

김여정 부부장은 도발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남한 당국이 방치했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진단 살포는 지난 3월 30일 대북 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살포 사례이다. 경찰은 대북 진단을 살포한 대표를 즉

시 입건해 수사하고 사무실 등도 압수 수색했다.

대북 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북 진단 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통일부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도 김여정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진단 살포를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단호 이후 북한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달화에서 대남 대화 기구인 조경동과 금강산 국제관광공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북한이 다시 대북 진단을 발의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정세에 급속히 냉각시켰던 1년 전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생산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 방안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은 백신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수억 회 분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국내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들여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병에 넣어 포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품질 유지와 무균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공정이다.

3분기부터는 수억 회 분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만큼, 더욱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모더나사는 한국의 백신 생산 시설 투자 등에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사의 한국 내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협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미 생산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노바백스사는 코로나19와 독감을 결합한 백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에 대한 연구 개발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군 장병 5만 명이 맞을 백신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질병청, 국방부,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